

근대 종로와 본정의 야간경관에 대한 담론 연구

권영란* · 배정환**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전공 박사과정,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원 · **서울대학교 조경·시스템공학부 교수

I. 서론

“남촌에 카페, 북촌에 빙수가게”(김명환·김중식, 2006)는 일제강점기 변화한 남촌과 비교해 전근대의 모습이 남아 있던 북촌을 모습을 묘사한 표현이다. 마찬가지로 “남촌인 본정 혹은 황금정, 태평동, 남대문 등지에는 가로등의 시설이 완비되어 가로의 미화로 보든지 밤거리의 화려찬란한 것으로 보든지 도회지로서 손색이 없으나 대경성의 중앙지대인 종로 일대에는 아직까지도 가로등하나 볼 수 없어서 어떠한 점으로 보든지 적막한 느낌(후략)”(매일신보, 1934년 11월 24일자)이라는 기사는, 두 생활권의 근대화에 대한 격차가 밤 시간에도 존재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1900년, 종로 보신각에 국내 최초의 전등 가로등이 설치되었다는 사실(권영란, 2018)을 염두에 둔다면, 1934년 기사에 나타난 종로와 본정의 격차는 의아하다. 일본인 거주지인 본정의 밤이 “경성의 명물”(경성일보, 1928년 10월 9일자)이자 “불야성의 별천지”(鄭秀日, 1929)로 발전하는 동안 왜 종로는 “적막한 느낌”(매일신보, 1934년 11월 24일자)일 수밖에 없는가? 이 차이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했는가? 이 연구는 앞선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 근대 종로와 본정의 야간경관에 대한 담론들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먼저 두 생활권의 야간경관에 대한 신문기사를 수집한 후, 이를 토대로 담론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II. 담론 분석을 위한 기사 수집

종로와 본정의 야간경관 담론을 살펴보기 위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기사를 수집했다. 신문기사는 관제 서류와 비교하여 당시 대중들의 인식과 관심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기록 자료다(김하나, 2014). 조사 범위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발행된 1920년부터 1940년까지로 한정했다.

먼저 기사는 ‘야간경관’, ‘야경’, ‘가로등(街路燈)’, ‘가등(街燈)’ 및 ‘종로(鐘路)’, ‘본정(本丁)’의 키워드로 검색하여 수집했다. 다음으로 ‘북촌’, ‘남촌’, ‘진고개’ 등의 키워드와 ‘전등(電燈)’, ‘불야성(不夜城)’, ‘네온’, ‘일루미네이션(illumination)’, ‘별천지(別天地)’와 같은 키워드로 기사를 검색하여 종로와 본정의 야간경관과 관련 있는 기사인지 선별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

을 통해 총 63개의 야간경관 관련 기사를 수집했고, 조간신문에 실린 기사가 같은 날 석간에 게재된 경우를 삭제했다. 다음으로 위의 키워드를 통해 검색되지 않았지만 담론 분석에 유의미한 기사들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앞서 검색한 63건의 기사 중 구체적인 장소(안국동, 황금정 등), 건축물(화신백화점 등), 사건(등화관계, 야시장 등)과 관련된 키워드로 검색하여 야간경관 담론 분석의 대상 12건을 추가했다. 마지막으로 총 79건의 기사 중 보도 자료가 아니라 해당 매체에 실린 소설·시 등의 문학 작품인 경우 담론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종 분석 대상은 69건의 기사인데, 종로에 관한 기사가 45건, 본정 관련 기사는 20건이다. 하나의 기사에서 두 지역의 야간경관을 모두 언급하는 경우 각 1건씩 포함했기 때문에 각 생활권 기사의 합은 총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Table 1. 종로 및 본정의 야간경관에 대한 기사 현황

연도	종로	본정	계	연도	종로	본정	계
1920	0	0	0	1931	2	2	2
1921	1	3	3	1932	0	0	0
1922	0	0	0	1933	1	0	1
1923	0	2	2	1934	3	0	3
1924	1	2	2	1935	12	1	12
1925	1	0	1	1936	1	1	2
1926	0	0	0	1937	7	3	8
1927	1	1	1	1938	5	1	5
1928	4	0	4	1939	12	1	13
1929	1	1	2	1940	5	0	5
1930	2	2	3	총계	59	20	69

기사의 구체적인 담론 분석에 앞서, 연도별 기사의 수를 기준으로 이슈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1935년 종로와 관련된 기사가 12건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는데, 대부분 7월에 설치시작될 가로등의 위치, 비용, 규모와 일정 등 구체적인 가로등 설치 계획에 대한 내용이다. 1937년 기사 수가 증가한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중일전쟁과 관련하여 야간경관의 통제 내용을 담은 기사

가 다수 보도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1938년부터 종로에 요리점과 요정이 밀집된 가로가 네온가(街)로 칭해지면서 이 지역에 대한 경관 묘사와 사건·사고를 보도하는 기사가 증가했다.

III. 근대 종로와 본정의 야간경관 담론

1. 근대화의 상징

야간 조명시설, 특히 가로등의 설치에 대중들에게 근대화의 척도로 인식된다. 1935년 이전 기사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정 야간경관의 근대화를 묘사하는 기사(동아일보, 1923년 12월 26일자; 1927년 3월 13일자)와 반대로 종로에 가로등 설치를 염원하는 기사(동아일보, 1930년 1월 29일자; 1934년 4월 11일자)가 지배적이다. 1935년이 되어서야 종로의 근대화에 대해 논의하는 기사(조선일보, 1935년 1월 24일자; 1935년 2월 11일자)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남촌은 광명, 북촌은 암흑”(동아일보, 1931년 3월 14일자)과 같은 표현을 통해 일찍이 근대화가 진행된 남촌과 그렇지 못한 종로 일대를 짐작할 수 있다.

2. 구경거리로서 야간경관

야간경관은 근대화의 상징이자 당시 사람들의 구경거리였다. 이는 점을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구경거리로서 야간경관은 지역과 관계없이 불야성, 백주(白晝) 등으로 묘사되지만, 야간경관의 양상은 두 생활권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본정은 “본정통 일대에는 집집마다 처마 끝에 술가지와 전등을 장식하여 밤마다 불야성”(동아일보, 1923년 12월 26일자)을 이루는 주거공간과 상업공간 모두 불야성, 별천지 또는 별세계에 온 순간 등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종로의 경우, 1935년 이전에는 영세한 야시장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다가(동아일보, 1924년 4월 1일자; 조선일보, 1925년 8월 23일자) 1937년 화신백화점에 설치된 네온사인 에 대한 묘사(조선일보, 1937년 10월 8일자)가 지배적인 것으로 미루어보아, 종로는 일상 공간보다는 상업공간의 야간경관이 구경거리로 인식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외에도 종로의 야간경관은 요정, 흥등가, 환락가 등과 같은 향락업소를 의미하기도 한다(조선일보, 1938년 8월 17일자; 동아일보 1939년 11월 26일자).

구경거리로서 야간경관에 대해 살펴보면 발견한 흥미로운 점은 불야성에 반대되는 암흑성(暗黑星)이라는 용어가 함께 등장한다는 것이다(동아일보, 1937년 8월 22일자). 과거에는 불야성의 경관이 구경거리인 동시에, 정전 또는 등화관제(燈火管制)와 같이 평소와 달리 전깃불이 꺼진 밤 경관 또한 중요한 구경거리이자 기삿거리가 된 것이다(조선일보, 1921년 9월 23일자; 1937년 11월 10일자).

3. 차별 정책의 수단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담론은 당시 사람들이 야간 조명시설의 설치가 차별 정책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논의했다는 점이다. 당시 사람들은 이미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남촌 지역에는 가로등이 계속해서 부설되지만, 종로의 시가는 왕래가 빈번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는 점에 불만을 호소했다(조선일보, 1921년 6월 16일자; 1930년 3월 30일자; 1931년 3월 14일자; 1935년 9월 6일자). 본정이 “불야성의 낙원”(조선일보, 1931년 3월 14일자)일 때, 종로가 “암흑세계”(조선일보 1930년 3월 30일자)인 상황이지만, 납세를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당시 사람들은 “빈자가 부자에게 그 이익을 유린당하고 있는 감”(조선일보 1935년 9월 6일자)이라며, 일제의 차별 정책에 대한 비판의 논의가 있었다.

IV. 결론

이 연구는 근대 종로와 본정의 야간경관에 대한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두 생활권의 야간 조명시설의 격차와 이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야간경관은 근대화의 척도이자 구경거리로 당시 사람들에게 인식되었다. 다만 종로와 본정 지역의 야간경관에 대한 담론은 양분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일제의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차별 정책이 자리하고 있었다. 근대 야간경관 담론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성전기주식회사를 비롯한 야간 조명시설의 조성 절차, 요금 부과, 운영관리 등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경성일보, 1928년 10월 9일자.
2. 권영란(2018) 근대 도시 야간경관의 태동과 변화 양상: 1887-1945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김명환·김중식(2006) 서울의 밤 문화. 생각의 나무.
4. 김하나(2014) 1930년대 전후 공업도시 담론과 영등포의 서울 편입. 도시연구 11: 37-68.
5. 동아일보, 1923년 12월 26일자; 1924년 4월 1일자; 1927년 3월 13일자; 1930년 1월 29일자; 1931년 3월 14일자; 1934년 4월 11일자; 1937년 8월 22일자; 1939년 11월 26일자.
6. 매일신보, 1934년 11월 24일자.
7. 鄭秀日(1929). 진고개, 서울맛·서울情調. 별건곤, 23.
8. 조선일보, 1921년 6월 16일자; 1921년 9월 23일자; 1925년 8월 23일자; 1930년 3월 30일자; 1931년 3월 14일자; 1935년 1월 24일자; 1935년 2월 11일자; 1935년 9월 6일자; 1937년 10월 8일자; 1937년 11월 10일자; 1938년 8월 17일자.